

일상에 닿는 돌봄, 순천시 조곡동이 앞장선다

속도보다 방향, 성과보다 기준, 전문가보다 주민을 택한 조곡동

순천시 조곡동은 주민 중심의 돌봄 행정을 강화해 '살기 좋은 조곡동, 행복한 우리동네' 실현에 나섰다.

조곡동은 올해를 주민 돌봄 행정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기존의 단편적인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주민의 일상과 안전, 삶의 질을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돌봄 행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원실을 중심으로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제공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 운영 ▲민원 윈스톱 안내 카드 제작 및 배부 ▲스마트 민원도우미 운영 ▲음악이 흐르는 휴식 공간 조성 등 주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안부 확인 강화

▲어르신·1인 가구 돌봄 연계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의 연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돌봄 체계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또한 조곡동은 주민자치회, 통장단, 지역 단체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행정-주민-지역이 함께하는 돌봄 기반을 다지고, 민생 지원, 위기가정 관리,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해 주민 중심의 선도적인 자치 동네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조곡동 관계자는 "조곡동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의 삶을 함께 돌보고 책임지는 동네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곡동은 지난해 민생복지지원금 지급률 1위를 기록하며 주민 생활 안정에 앞장선 바 있다. 이와 함께 철도마



광주 광산소방서장, 고층건축물 현장 안전컨설팅 실시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나홍원)가 지역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1일 광산구 관내 고층아파트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아파트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지도는 최근 홍콩의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고층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 내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용도 및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화재 시 초기 대응방법 등을 지도했다.

또한 광산소방서는 22일까지 관내 전

체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전문가·지자체 건축부서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피난동선 확보 ▲소방시설 정상 작동 ▲관계인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나홍원 광산소방서장은 "고층건축물 화재를 예방하려면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 모두의 관심이 필수"라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화재안전망 구축과 함께, 관계자 및 입주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준행 기자

강대권 신전면지역발전협의회장, 취임기념 100만 원 기탁

신전면 지정기탁 제6호 탄생... 희망2026 나눔캠페인 동참

강대권 강진군 신전면지역발전협의회 제17대 신임회장이 취임을 기념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으로 신전면 지정기탁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기탁으로 강 회장은 2026년 신전면 지정기탁 제6호 기부자가 됐다.

강대권 회장은 이번 취임기념 기탁뿐 아니라 2021년과 2024년에도 각각 100만 원을 신전면에 지정기탁하며 꾸준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동안 강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발전협의회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신전면의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

한편, 신전면지역발전협의회 제35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은 오는 2026년 1월 27일(화) 오전 11시, 신전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6대 박동열 회장의 이임과 제17대 강대권 회장의 취임이 함께 진행되며, 지역발전협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강대권 신임회장은 "신전면에서 받아온 관심과 신뢰에 보답하고자 취임에 맞아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이 신전면장은 "취임과 동시에 지역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강대권 회장의 뜻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탁이 신전면 지정기탁 제6호로 이어져, 따뜻한 나눔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전면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담양애꽃·쌍교숯불갈비, 17년째 멈추지 않는 따뜻한 동행

2010년부터 이어진 정기 후원... 민관 협력 '촘촘한 돌봄'

담양의 대표 향토기업인 담양애꽃(대표 박영아)과 쌍교숯불갈비(대표 김창희)가 2026년 새해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양 기업은 지난 2010년부터 17년째 한결같이 봉산면 관내 독거어르신 170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900만 원 상당의 유제품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매주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유제품을 전달하며 건강 상태를 살피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정서적 돌봄도 함께하고 있다.

담양애꽃 박영아 대표는 "17년 전 처음 나눔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늘 간직하고 있다"며 "어르신들께 전달되는 것은 유제품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쌍교숯불갈비 김창희 대표는 "지역민들의 사랑 덕분에 기업이 성장한 만큼, 어르신들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 이웃과 함께 걷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현 봉산면장은 "강산이 두 번 바뀐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준 두 대표님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행정에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아 대표와 김창희 대표는 현재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HD현대삼호, 고려자 취업·복지 지원... 인생 2막 응원한다

임대로 무상 지원... 이동세탁 차량 구입비 후원

HD현대삼호가 지역 고려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복지지원에 나섰다.

HD현대삼호는 22일 영암군 삼호읍 한마을회관에서 김재을 사장을 비롯해 영암시니어클럽 장영범 관장, 우승희 영암군수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he 기찬밥상 Premium 개소식'을 열었다.

'The 기찬밥상 Premium'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2분기(6~9월) 고려자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영암시니어클럽이 사회적협동조합 정성그린을 통해 다수의 고려

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한식뷔페다. HD현대삼호는 앞으로 5년간 2억원 상당의 사업장 임대료를 무상 지원한다.

개소식에 이어 '찾아가는 기(氣)찬빨래방' 차량 전달식도 진행됐다. 찾아가는 기(氣)찬빨래방은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이동세탁 차량이 직접 방문해 무료 세탁 및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HD현대삼호는 이동세탁 차량 구입비로 1억5000만 원을 후원했다.



22일 영암군 삼호읍 한마을회관에서 열린 'The 기찬밥상 Premium 개소식'에서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 영암시니어클럽 장영범 관장, 우승희 영암군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D현대삼호 제공

김 사장은 "HD현대삼호는 지역 어르신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하고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제54회 강진청자축제

휴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